

강진·장흥군 손잡고 상생의 축제마당

경쟁관계 벗고 청자·정남진 물축제 같이 열기로

양 지자체 서틀버스 운행 등 관광객들 편의 제공

장흥군과 강진군이 지역간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서로 윈-윈(win-win)하는 새로운 축제운영 모델을 창출, 눈길을 끌고 있다.

장흥군과 강진군은 손을 잡고 지역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동시에 치르기로 했다.

장흥군의 '정남진 물축제'는 29~8월 4일(7일간)까지, 강진의 '청자축

제'는 30일~8월 7일(9일간)까지 장흥 탐진강변과 청자도요지 일대에서 동시에 열린다.

양 지자체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축제기간 을 잇는 서틀버스를 운행하고, 축제예산 절감 효과 차원에서 공동으로 신문·TV광고 등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다.

또한 축제기간중에 열리는 야간 공연

역시 장흥과 강진이 서로 격일제로 가수·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관람객들로 하여금 흥미를 돋보이게 할 계획이다.

황주홍 강진군수와 이명홍 장흥군수는 이미 지난해 12월 2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 상생과 협력을 통해 두 축제를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양 지자체는 대한민국의 축제 아이콘으로 성장한 양 지역 축제 브랜드와 잠재력을 활용해 상호 윈(Win)-윈(Win)하는 시너지 효과와 함께 한국의 새로운 축제운영 모델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명홍 장흥군수는 "지자체마다

축제의 소재와 성격이 다르고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점과 반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축제운영에 있어 전국 최초의 상생과 협력사례로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과 강진은 생활권과 역사·문화가 비슷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단체간 자율 통합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데다 지난해 2005년 이후부터 양 지역 인사들이 나서 통합에 따른 자생모임을 구성하는 등 물밑접촉이 오가기도 했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남철희기자 kykim@



나주시는 12일 남평을 동사리 현지에서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택지조성) 기공식을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

나주 남평에 31만㎡규모 택지조성

초안산업개발 등서 660억 투자 2012년 준공

나주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사업 등이 기공식을 하는 등 가시화되고 있다.

나주시는 12일 남평을 동사리 현지에서 임성훈 시장과 시행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평도시개발 기공식을 가졌다.

남평 도시개발 사업은 31만3000㎡ 규모로 ㈜초안산업개발과 ㈜시유건설이 660억원을 투자, 2012년말 준공하기로 했다. 이곳은 공동주택과 전원형 단독주택 등이 들어서며 인구 5000~6000여명이 상주하는 계획도시로 건설된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산포면 신도리 일대 29만2000㎡의 신도 일반 산업단지도 다음달 기공식을 하며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 관련 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나주시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이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모두 40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장흥 표고버섯 주식회사

107농가 참여 설립 가시화

장흥군의 특산물인 표고버섯 재배 농가들이 출자한 주식회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표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청약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107농가가 참여해 9억5000만원의 청약이 받았다.

군은 지난 2009년 사업성 분석 및 주민설명회를 시작해 관내 표고농가들을 직접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벌였고 지난 1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청약에 들어갔다.

앞으로 장흥표고 주식회사 추진위원회는 오는 8월 말까지 설립발기인 구성과 정관 작성 등을 마무리하고 전문 경영인을 공개채용해 32억원 자본규모로 가공·유통 시스템을 갖춘 전문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민선 5기 1년

최형식 담양군수

“자연 순환형 생태농업 추진”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해 취임식에서 선진국형 담양만들기 경영 혁신 전략인 '뉴-담양플랜'을 선포하고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정책' '서비스형 지방정부'를 국정지표로 삼아 군정의 우선순위를 ▲서민복지 실현 ▲담양식 교육 프로젝트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문화관광 레저산업 육성에 두고 역동적인 군정을 펼친 결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또 친환경농업 대상 정부평가에서 최우수상과 도 평가 대상상을 비롯 농촌진흥사업 평가 대상, 산림 분야 합동평가 최우수상, 경제대책 추진평가 최우수상 등 총 19개 분야에서 수상해 4억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다.

각종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과 메타세쿼이아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죽순 및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사업, 쌀 가공식품 사업 등 총 22건이 선정돼 35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와 같은 정부 평가와 공모사업에 총 41건이 수상과 선정돼 355억2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2011년도 담양군 총 예산규모 2805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을 마련했다.

군은 생태도시화 정책을 통한 담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 54억원

'뉴-담양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과 '담양군 제2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생태농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로 13회 짝을 맞은 대나무 축제는 78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 260억 원의 지역경제 과급 효과를 거두었으며, 전국 가볼만한 축제 20선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은 대나무축제를 세계속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5 담양세계 대나무엑스포'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유망기업 14개 업체 507억 원을 유치했으며, 21세기 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한국마사회 '제5경마장'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행정조직에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를 위해 군정 주요 정책 추진 사항을 평가하는 '정책평가 담당'을 비롯,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원스톱 처리하기 위한 '직소 민원실', 명품한우 육성을 위한 '한우담양', 지역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 담당', 기업투자를 전담하는 '투자유치단'을 행정조직에 신설했다.

최형식 군수는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 담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각종 공모사업 41건 수상

정부 예산 355억 확보

서민복지 실현 나서

이 투입될 예정인 '기후변화 교육·체력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국내 최고 웰빙 관광지로 떠오른 죽녹원 가는 길 1.3km에는 3억5000만원을 들여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하고, 관광지와 문화재 주변 및 건축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주변 경관을 고려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군은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생태농업'과 '담양식 농정정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의 매뉴얼인

전 북

LH유치 실패 반발 일단락?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속속 착공

농진청 청사 등 잇따라 신축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 대부분이 7월부터 차례로 착공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유치 실패와 맞물려 지연됐던 농촌진흥청과 4개 산하기관이 21일 전북혁신도시 현장에서 합동으로 신축사 착공식을 갖는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농수산대학 등 5개 농업기능군(群)은 전북혁신도시에서 처음 착공하는 이전 기관들이다.

전북혁신도시 62%(6.3km)를 개발하는 이들 기관은 2014년 말 이전을 목표로 총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시험연구동과 부속시설 140여 개를 짓고 대규모 농작물 시험포장을 조성한다.

전주시와 완주군도 실시계획과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이 착공을 비지

않도록 이전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지방행정연수원도 부지 조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에 청사를 착공해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청사는 18만1000여㎡의 부지에 총 1700여억 원을 들여 4만7000여㎡ 규모로 들어선다.

청사가 완공되면 2013년 상반기부터 총 149개 과정에 연간 15만여 명의 공무원이 입교할 예정이다.

이어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전기간전공사도 연말까지 신축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 농수산대학과 한국전기간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은 내년에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착공한 전북혁신도시의 전체 부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고 현재 분양률도 90%를 웃돌아 전국 최고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군산시립교향악단 내일 밤 영화음악 연주회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14일 저녁 7시 30분 시민문화회관에서 '제34회 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립교향악단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영화 '타이타닉', '스파이더맨', '포레스트 검프' 등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함께 뮤지

컬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 주제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뮤지컬음악 연주 시에는 뮤지컬 배우인 손준호·김소현 씨가 협연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정읍수박연구회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 품평회

정읍시와 정읍수박연구회(회장 이석번)는 15~16일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 품평회를 갖는다. 이날 품평회는 ▲세계유전자원 수박 ▲연구회원 출품 수박 ▲수박작가 작품 등 200여점을 선보인다.

부대행사로 수박시식과 행운권 추첨, 수박씨 멀리 뺏기 게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 다. 특히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을 시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당도와 육질이 탁월한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을 홍보하기 위해 품평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ks@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남원시는 전북대 사회과학대학과 공동으로 12일 시청 강당에서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원이 갖고 있는 여건과 실상을 면밀히 진단하고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과 오는 12월 전라선 KTX 개통이 예정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도·농 복합 통합시의 특성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농업, 관광산업,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KEPCO, 청년인턴 대상 전력 산업 현장견학

한국전력공사(KEPCO) 전북본부(본부장 유명호)는 최근 청년인턴 40여명을 대상으로 전력 산업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청년인턴들은 고장 실증단지 와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하고 미래의 에너지원에 대한 안정

적인 확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유명호 본부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혁신역량을 결집해 고객유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반딧불 캐릭터 만드는 세계 태권소녀들 '제5회 세계 태권도문화엑스포' 4일째인 지난 11일 대회를 마친 태권소녀들이 무주군 예제문화관에서 반딧불 캐릭터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군산도심 주차난 해결해달라”

공영주차장 턱없이 부족, 조성 민원 잇따라

시의원들, 지역구 챙기기 싸움에 예산 삭감

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군산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차장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무려 54개소에서 주차장 조성을 요구했다.

이중 대부분은 주차난이 극심한 나운동과 수송동, 월평동, 영화동, 경암동 등 신·군도심 지역들이다.

54개소의 주차장 예상면적은 6만 4300㎡에 달하고 사업비만도 450억원이 예상된다.

이처럼 올해 공영주차장 조성 민원

이 잇따르게 된 것은 지난 2년간 시의회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기 때문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주차장을 우선 설치하려는 의원간의 힘겨루기와 이견이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시에서 올린 25억원 규모의 주차장 조성비가 전액 삭감됐다.

시는 주차난을 더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고 보고 이번엔 수요조사를 토대로 공정한 심사를 해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가장 시급한 곳에 올해 추경예산을 투입해 조성공사를 벌이고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한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벌인 만큼 주차난이 심한 곳부터 차례로 주차장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며 “시의회도 이번에는 사업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향구도시인 군산은 새만금시대를 맞아 인구가 늘고 있는 데 반해 도심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주로 개설됐던 구도심의 길은 비좁고 비탈진 곳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다.

【연합뉴스

17ha 보랏빛 도라지 꽃밭으로 오세요

강천사서 23~24일축제

순창군은 오는 23~24일 이틀간 강천산 일대에서 '도라지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팔덕면 장안·백암·장재·이북·덕진·평지마을에 만개한 17ha의 보랏빛 도라지꽃밭에서 펼쳐진다.

주요 행사로는 누드도라지 만들기과 나무꾼 선발, 미꾸라지 달리기 같은 경연과 물고기 잡기, 연 만들기, 팽이 만들기, 물총 만들기, 트랙터 타기 등의 농촌체험

이 진행된다.

또 명인들의 지도로 짚 공예, 탕화 그리기, 한지인형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향토음식점에서 도라지와 고추장, 나타리버섯, 풋고추, 채소, 복분자 등 신선 농산물을 싼 값에 살 수 있다.

박영훈 축제준비위원장은 “강천산 권역의 아름다운 자원을 알리고 농산물 판매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는 도시민을 위한 체험행사와 웰빙 농산물을 푸짐하게 준비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